

자유로운 개인들이 공감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교육과정 안내

지식순환협동조합

목 차

1. 왜 [지순협 대안대학]인가?	1
(1) 경쟁을 넘어, 공감과 협력으로!	1
(2) 교육협동조합, 상호부조 교육공동체	2
(3) 공감과 협력의 교육이념	2
 2. 교육 목표 : 나와 사회의 동시적 변화	4
 3. 운영 원칙	7
(1) 지적 평등성과 민주주의의 실천	7
(2) 공감과 협력의 교육	7
(3) 적녹보라 패러다임	8
 4. 교육과정의 설계	9
(1) 통섭형 교과 구성	9
(2) 순환형 교육 과정	9
(3) 다차원의 공감과 협력의 교육	9
(4) 상호부조 교육조직	9
 5. 교육과정의 두 가지 범주 : <이론>과 <워크숍>	10
(1) 이론 과정	12
(2) 워크숍 과정	13

(3) 강사진	13
---------------	----

6. 교육과정의 구성 : 8학기 쿼터제

18

(1) 전공 강좌와 자유전공	18
-----------------------	----

(2) 졸업 후 진로	21
-------------------	----

(3) 담임교수제	21
-----------------	----

7. 세부 교육과정

23

(1) 이론 과정 과목 개요	23
-----------------------	----

(2) 워크숍 과정 과목 개요	35
------------------------	----

8. 2017년 입학 전형

43

(1) 개요	43
--------------	----

(2) 전형 일정	43
-----------------	----

(3) 문의	44
--------------	----

[지식순환협동조합 창립선언문]

45

1. 왜 [지순협 대안대학]인가?

(1) 경쟁을 넘어, 공감과 협력으로!

‘교육의 종말’, ‘교육 불가능’의 시대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은 더 이상 전인적 인간 완성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경쟁이 교육에서조차 최고 논리가 되었고, 지식의 칸막이는 너무 높고 견고합니다.

이 결과 사람들은 공감 능력을 상실한 경쟁적·냉소적 인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펼쳐놓은 경쟁교육은 인간을 모두 시장으로 내몰아 경쟁적 주체로 만들었고, 교실과 대학, 사회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제는 인류문명의 쇠퇴를 정당화하며 미래까지 차압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진단하며, 지식과 경험, 감정과 정념의 승화와 확산을 통해 좋은 삶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역동적이고 변화 가득 찬 우리 삶의 조건 속에 각자 꿈을 실현하고 타인과 연대하고 공감하며 더 나은 세계를 그려내는 영역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삶의 희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희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경쟁교육에서 협력과 공감의 교육으로, 경쟁사회에서 협력사회로 나아가는 대안적 교육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경험적 지식과 심원한 전문적 지식이 서로 만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폐쇄적인 분과학문의 장벽을 넘어 과학과 예술, 인문학과 자연과학, 철학과 공학을 가로지르는 전인적 교육을 실천할 것입니다.

[지순협 대안대학]에서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맺음으로 가꾸며 주체와 사회 모두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2) 교육협동조합, 상호부조 교육공동체

[지순협 대안대학]은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산업혁명 이후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긴 노동자, 농민, 소시민들이 삶의 새로운 토대를 만들기 위해 아래로부터 공감하고 협력하여 구축한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상호부조’라는 인류의 공생 전통을 추구했고 자유와 연대, 협동의 가치에 따라 함께 하는 좋은 삶을 모색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협동조합의 원리를 지식생산과 공유의 영역에서 실천하려 합니다. 지식의 상호부조와 상호증여는 모든 인간의 지적 평등성을 강조하고 자유와 공존, 타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학습의 영역에서 체화시키며 삶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공감과 협력의 교육이념

우리는 ‘공감과 협력의 교육’을 교육의 이념으로 제안합니다.

‘공감과 협력의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각자가 차이와 고유함을 보존하면서도 서로 연합하는 거듭난 주체가 되도록 서로를 변화시키는 교육입니다. 또한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협력하며 연대하는, ‘뚝뚝하면서도 따스한 인간미를 갖춘 주체’를 육성하는 교육입니다.

인간의 삶은 의미를 갖는 한에서만 유지되며, 인간은 삶을 유지하는 한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런 인간의 의미화는 주체로서의 인간 앞의 모든 객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소통하는 존

재이자, 찰나의 순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생성하게 하는 ‘상호 생성자 (inter-becoming)’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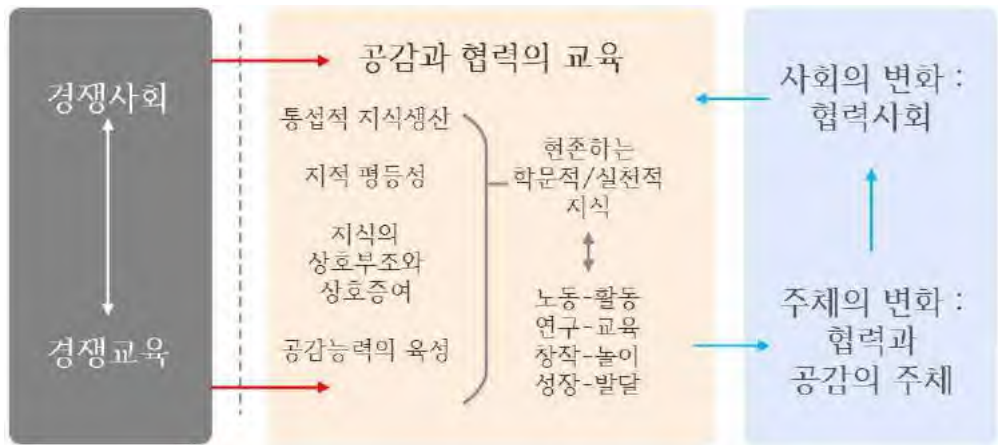
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기적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고,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공감하고 연대하며 타자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실천을 통해 인간은 진정한 자기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 소외와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고 자기의 혁명과 사회의 혁명을 종합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사회의 모든 환경에 경쟁을 심어놓은 현재 사회에서의 교실은 폭력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난 인간이란 존재는 ‘상호 생성자’이며, 유전적으로 이미 타자와 공감하며 협력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21세기 디지털 사회의 다양한 혁신들은 갈등과 경쟁의 낡은 체제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기술의 공유를 통한 공감과 상생의 세계로의 이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감과 협력의 교육을 바탕으로 한 협력사회는 신자유주의 체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비전임이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감과 협력의 교육’으로 경쟁교육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 구조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주체 형성을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개인들이 공감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바로 [지순협 대안대학]입니다.**

2. 교육 목표 : 나와 사회의 동시적 변화



[그림-1] 지순협 대안대학의 교육목표

[지순협 대안대학]은 세 가지의 교육 목표를 제안합니다.

첫째, 협력사회 전망 함께 세우고 나누기

[지순협 대안대학]의 교육과정은 현재의 경쟁사회, 경쟁적 주체를 대안적 협력사회, 공감하고 협력하는 주체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안적 협력사회는 계급차별은 물론, 남녀 차별과 인종 차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차별을 철폐하여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의식주, 지식, 경험을 나누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연대하고 공감하며 협력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는 기존 사회운동들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적(노동)-녹(생태)-보라(여성운동) 연대의식에 바탕을 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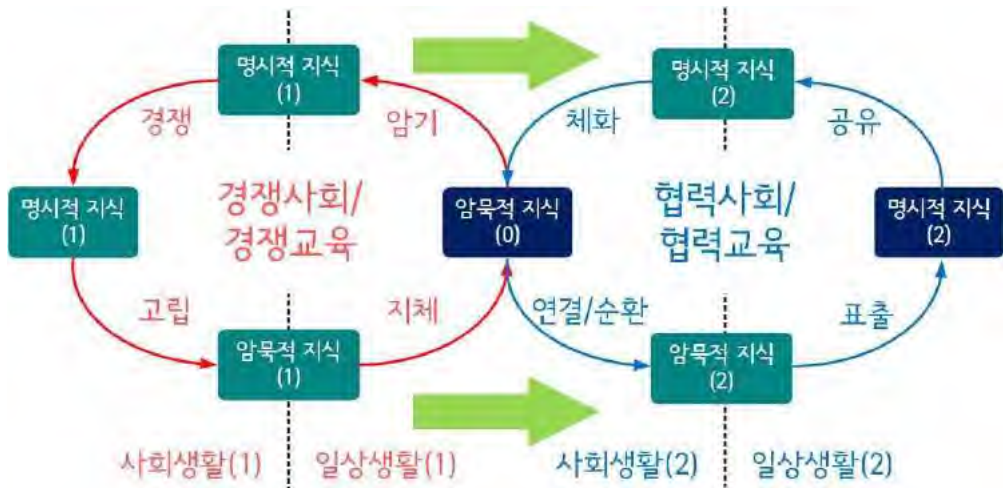
둘째, 공감과 협력의 교육 함께 만들기

대안적 협력사회와 타인과 공감하는 협력적 주체를 구현하기 위해 대안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 지닌 지식과 경험을 연결하여 순환시키는 통섭적 선순환 구조 만들기에 동등한 주체로 참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 스스로를 알고, 타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공감하며, 그럼으로써 사회를 바꾸나감과 동시에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역능을 키워 나갑니다.

셋째, 공감하고 협력하는 주체로 거듭나기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차별 없이, 모든 교육과정 참여자는 감성-지성-인성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경쟁적 삶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공감하는 대안적이고 협력적인 삶을 지향합니다. 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기적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고,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공감하고 연대하며 타자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실천을 하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혼돈과 불안의 시대 어지러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며, 경쟁사회를 협력사회로 바뀌낼 수 있는 다차원적 협력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순협 대안대학]은 이상의 세 목표가 서로가 서로에게 목적이자 수단이 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지향합니다.



[그림-2]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의 협력적 순환



[그림-3] 지순협 대안대학 목표의 선순환 구조

3. 운영 원칙

[지순협 대안대학]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운영 원칙을 제시합니다.

(1) 지적 평등성과 민주주의의 실천

[지순협 대안대학]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역, 학벌, 나이, 성별, 신체적·정신적 장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의 거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교육이 핵심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순협 대안대학]은 모든 이들의 ‘지적 평등성’을 운영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적 평등성은 자기 통치적인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지순협 대안대학]은 학생자치, 교과위원회 등 다양한 회의기구를 통해 학생, 교수, 사무국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시할 수 있고 또한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을 ‘소비자’로 전락시키고 의사결정 단위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현재 기업화된 대학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2) 공감과 협력의 교육

앞서 언급했다시피, ‘공감과 협력의 교육’은 [지순협 대안대학]의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핵심적 개념입니다. 또한 이는 단지 커리큘럼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 개인이 지닌 다양한 능력들을 재발견하고 서로 순환하게 만드는 역량 강화의 차원에서 출발하여 학생 차원에서의 다양한 자치활동을 통한 친밀한 관계 맺음을 재발견하고, 담임교수 및 강사 선생님들과 학생의 만남을 통해 배움의 새로운 기쁨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 노동·생태·여성·소수자인권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으로의 적극적 참여 등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사회적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안적 삶’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고자 합니다.

(3) 적녹보라 패러다임

이럴 때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노동운동(적색)과 생태운동(녹색), 그리고 여성운동(보라색) 사이의 긴밀한 관계성입니다. 개별 부문만을 강조해왔던 각종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적색과 녹색, 그리고 보라색이 서로 어우러져 손을 맞잡고 함께 할 때에만 '경쟁적 주체'에서 '공감하고 협력하는 주체'로의 전환이, 그리고 '경쟁사회'에서 '공감과 협력의 사회'라는 대안사회로의 이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순협 대안대학]은 이러한 '적녹보라 패러다임'을 교육과정을 포함한 지식순환협동조합의 모든 활동에 핵심적인 전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운영의 원칙은 어느 것 하나가 우선순위일 수 없으며,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출발점이자 목표점이 됩니다.

4. 교육과정의 설계

[지순협 대안대학] 교육과정은 위와 같은 목표와 운영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네 가지의 열쇠말을 통해 교육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1) 통섭형 교과 구성

[지순협 대안대학]의 교육내용은 기존의 나열식, 백화점식 교육과는 다릅니다. 개인의 주체성과 사회 체계가 함께 진보적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 지식들을 하나의 교과로 연결하는 통섭형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제반 학문 분야 간 통섭을 추구하는 교과, 그리고 21세기 대안사회의 복합적 비전 형성을 위한 적·녹·보라 연대 등 협력사회를 위한 미래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통섭적으로 다루는 교과로 구성됩니다.

(2) 나와 자연, 미래변화와 사회변화의 선순환을 촉진할 순환형 교육과정

[지순협 대안대학]은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경험, 그리고 개인의 내면적 변화를 위한 자기수련 과정을 연결시키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참여자는 <개인과 삶>, <개인과 사회>, <개인과 자연>, <자기탐구와 삶의 설계>, <자기표현과 문화기획> 분야의 다양한 강좌·워크숍 프로그램들을 연결하여 세계관, 사회관, 인간관의 변화를 내면적으로 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키워나갑니다.

(3) 다차원적 공감과 협력의 교육

오늘날 교육방법은 제도권, 비제도권 가릴 것 없이 대체로 일방향적 주입식입니다. 우리는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다차원적인 공감협력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상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4) 상호부조 교육조직

교육 참여자를 서비스를 향유하는 소비자로 전락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이념과는 다르게, [지순협 대안대학]은 협동조합 운영원리에 근거하여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호혜적 나눔 정신에 따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만들어내는 안정적 상호부조 교육조직을 만들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5. 교육과정의 두 가지 범주 : <이론>과 <워크숍>

[지순협 대안대학]의 교육과정은 두 개의 과목 범주를 설정하였습니다.

- <이론 과정> : 개별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섭형의 명시적 지식 체계를 가르치고 배우며, 이 지식들이 앞으로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 <워크숍 과정> : 자신의 능력을 재발견하며 타자와의 공감능력을 키우고, 오감을 활용하여 자신의 예술적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대안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실무적인 지식을 쌓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개의 과정은 아래 표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이론 과정	개인과 삶	인문학의 본과적 지식을 연결하는 통섭적 지식과 그 지식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
	개인과 사회	사회과학의 본과적 지식을 연결하는 통섭적 지식과 그 지식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
	개인과 자연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인 자연사의 복잡한 과정을 개인과 사회의 변화와 연결하여 탐구
워크숍 과정	자기탐구와 삶의 설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잠재력을 발굴, 타인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확대하며 앞으로의 삶을 기획해보는 워크숍
	자기표현 및 문화기획	오감을 열어 자신을 표현하고, 매체와 공간의 대안적 활용을 통해 문화활동을 기획, 삶을 살아갈 실천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숍

[표-1] 지순협 대안대학의 교육과정 범주 : 이론과 워크숍

(1) 이론 과정

<이론 과정>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1) <개인과 삶>

이 영역은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변화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통섭형 지식들의 새로운 체계를 가르치고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영역에 개설된 강좌들은 모두가 문학, 철학, 예술, 문화연구 등에서 형성된 제반 지식들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대안적 주체 형성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탐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개인과 사회>

이 영역은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를 대하는 태도를 갖추기 위한 제반 지식들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역사(문명사), 여성주의, 정치경제학, 대안사회론 등

의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면서 현대사회를 둘러싼 각종 쟁점들을 학습하고, 개인적 삶의 변화와 사회적 변화의 개별성과 동시성을 파악하며 다가올 미래사회의 전망과 삶의 사회적 실천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3) <개인과 자연>

이 영역은 기존의 과학기술 분야의 무수한 분과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식, 인간과 생태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진화 과정에 대한 지식, 그리고 환경-몸-뇌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고 발달하는 인간의 인지체계와 마음의 복잡한 전개에 관한 지식과 새롭게 등장한 복잡계 과학에 관한 지식 등으로 대별하여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지식들을 통해 개인에게 내재한 자연적 생명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개인과 자연의 공진화를 위한 대안적 탐구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워크숍 과정

<워크숍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1) <자기탐구와 삶의 설계>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가 우선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알아가면서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영역은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깨닫고, 타자와 소통할 수 있는 용기를 키워내며, 앞으로의 대안적 삶을 기획해보는 즐거운 탐험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타자와의 관계맺음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획력을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자기표현 및 문화기획>

무언가를 표현하고 만드는 과정은 한 개인의 감각적 능력을 일깨워줌과 동시에, 스

스로에 대한 성취감을 안겨줌으로써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영역은 다양한 자기표현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이러한 자기표현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획역량을 강화하는 실무적 역량을 쌓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입식 교육에 의해 등한시된 인간 신체의 오감을 다시금 일깨움과 동시에, 소비자본주의에 의해 황폐화된 문화적 감수성을 다양한 표현매체를 대안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되살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적 기획을 설계하면서 대안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제적·기획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이 영역의 목표입니다.

(3) 강사진 : 지식순환협동조합 생산자조합원

<지순협 대안대학>은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라 조합원은 생산자 조합원과 소비자조합원으로 구분됩니다. 즉 생산자조합원이 생산한 지식과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소비자조합원에게 널리 유통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운영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순협 대안대학>의 모든 강사진은 곧 지식순환협동조합의 생산자조합원이며, 입학하는 분들 역시 기본적으로 소비자조합원이 됩니다.

따라서, 생산자조합원은 모두 잠재적인 <지순협 대안대학>의 강사진입니다. 현재 <지순협 대안대학>의 생산자조합원은 현재 총 84명이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조합원들의 전공분야는 학문적으로는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 자연과학 등을 포괄하며, 협동조합 운동, 문화기획, 시민행동 등 더욱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사회영역의 활동가들도 생산자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지식의 분야를 아우르는 생산자조합원의 존재는 <지순협 대안대학>의 큰 강점입니다.

<p>이사진 및 운영진</p>	<p>이사장 이도훈(한양대 국문과 교수) 학장 강내희(지순협 대안대학 학장) 교과위원장 이명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문학평론가) 이사 서동진(계원예대 교수) 이사 임춘성(목포대 교수) 이사 박이은실(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이사 이모우(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이사 김기영(지순협 대안대학 2학년 학생) 감사 차병직(변호사) 운영위원장(대)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상이론과 교수) 운영위원 박영균(건국대 인문학연구원) 운영위원 최진석(수유너머N 대표, 이화여대 겸임교수) 사무국장 강정석(지순협 대안대학 사무국장)</p>
<p>담임교수</p>	<p>이모우(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인원근(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유상균(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김백일(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박이은실(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강정석(지순협 대안대학 사무국장)</p>
<p>2015년 1학기 강사</p>	<p>박영균(〈개인/사회/철학〉 강의,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임옥희(〈성의 이해〉 강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손희정(〈성의 이해〉 강의, 중앙대 강사, 〈문화/과학〉 편집위원) 김동혁(〈역사란 무엇인가〉 강의, 고려대 강사) 강경표(〈진화론 입문〉 강의, 중앙대 강사) 김재영(〈과학사의 이해〉 강의, 한국과학영재학교) 이정규(〈물리적 우주에서 마음의 우주까지〉 강의, 마중물가치연구소) 백윤영미(〈자기탐구 글쓰기〉 강의, 힐링드라마연구소) 조지은/이제(〈몸말, 손말 워크숍〉 강의, 아트스페이스 풀) 전유진(〈소리언어:음악〉 강의, 사운드 아티스트)</p>

<p>2015년 2학기 강사</p>	<p>이명원(〈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교과위원장) 최원(〈현대사회와 정치〉 강의, 〈문화/과학〉 편집위원) 심광연(〈지구적 위기의 쟁점들〉 강의, 한예종 영상원 교수) 노명우(〈지구적 위기의 쟁점들〉 강의,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유상균(〈물질과 우주〉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이득재(〈인지과학과 이해〉 강의, 대구가톨릭대 노어노문학과 교수) 백윤영미(〈마을의 극장/힐링드라마워크숍〉 강의, 힐링드라마연구소) 황보화(〈창조성회복여행〉 강의, 인천여성회) 이요우(〈자기표현글쓰기〉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박활민(〈공간디자인워크숍〉 강의, 삶디자인연구소) 김현승/이지연(〈공간디자인워크숍〉 강의, 동대문옥상낙원(DRP))</p>
<p>2015년 3학기 강사</p>	<p>이해진(〈페미니즘 이론〉 강의,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이요우(〈한국의 근현대사〉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인원근(〈과학기술과 대중문화〉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김상민(〈미디어, 테크놀로지, 정치〉 강의, 서울대 강사) 강경표(〈진화심리학〉 강의, 중앙대 강사) 유상균(〈엔트로피와 생명〉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양준석(〈의사소통_관계의연금술〉 강의, 마을에터협동조합) 강정석(〈대안적 삶의 설계〉 강의, 지순협 사무국장) 이재웅(〈서사창작워크숍〉 강의, 소설가) 오경미(〈전시/공연/축제기획〉 강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과정)</p>
<p>2015년 4학기 강사</p>	<p>최원(〈현대철학의 쟁점〉 강의, 〈문화/과학〉 편집위원) 고명철(〈한국현대문학의 이해〉 강의, 광운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정주(〈정치경제학 개론〉 강의, 〈진보평론〉 편집위원) 임춘성(〈문명의 전환과 아시아〉 강의, 목포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인원근(〈현대과학과 동양사상〉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하승우(〈생태학과 녹색운동〉 강의,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김영란(〈이야기로 푸는 사회적 관계〉 강의, 마을에터협동조합) 강정석(〈대안적 직업 설계〉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사무국장) 엠마누엘 사누(〈무용 워크숍〉 강의, 에스폴리 알레그리아) 박선영(〈축제 기획〉 강의, 문화연대 활동가)</p>

<p>2016년 1학기 강사</p>	<p>최원(〈개인/사회/철학〉 강의, 〈문화/과학〉 편집위원) 이요우(〈문학 입문〉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김백일(〈역사란 무엇인가〉 강의, 지순협 생산자조합원) 박이은실(〈성의 이해〉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유상균(〈물질과 우주〉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강경표(〈진화론 입문〉 강의, 중앙대 강사) 양준석(〈자기이해-애니어그램〉 강의, 마음에터협동조합) 권민정(〈미술과 자기탐구〉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김한주(〈손기술워크숍〉 강의, 목공 작가) 손한샘(〈공간디자인워크숍〉 강의, 공공미술가/예술장돌뱅이)</p>
<p>2016년 5학기 강사</p>	<p>김시천(〈동양철학 고전강독〉 강의, 숭실대 강사) 진태원(〈서양철학 고전강독〉 강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인원근(〈예술/미학 고전강독〉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강내희(〈문학고전강독〉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학장) 이해진(〈페미니즘 고전강독〉 강의,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박승호(〈정치경제학 고전강독〉 강의, 성공회대) 이미경(〈생물학/진화론 고전강독〉 강의, 이화여대 강사) 심광현(〈과학/기술사 고전강독〉 강의, 한예종 영상이론과 교수) 강정석(〈홍보마케팅/기획 워크숍〉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사무국장) 한광현(〈도시재생워크숍〉 강의, 오늘공작소)</p>
<p>2016년 2학기 강사</p>	<p>최원(〈인물로 보는 철학사〉 강의, 〈문화/과학〉 편집위원) 오창은(〈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강의, 중앙대 강의전담교수) 오창룡(〈현대정치의 쟁점〉 강의, 지순협 생산자조합원) 유상균(〈엔트로피와 생명〉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인원근(〈과학기술과 대중문화〉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양준석(〈타인이해-관계맺기의 패턴〉 강의, 마음에터협동조합) 림지훈(〈음악과 자기탐구〉 강의, 고구마음악교육연구소) 엄기호(〈자기표현 글쓰기〉 강의, 〈단속사회〉 저자) 손한샘(〈공간디자인워크숍II〉 강의, 공공미술가/예술장돌뱅이)</p>

<p>2016년 6학기 강사</p>	<p>김준기(〈현대예술과 대안사회〉 강의, 미술평론가) 이도홍(〈동서철학의 만남〉 강의, 지식순환협동조합 이사장, 한양대 교수) 심광현(〈마음의 과학과 철학〉 강의, 한예종 영상이론과 교수) 이요우(〈주제토론〉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이원재(〈문화행동워크숍〉 강의, 문화연대) 김정주(〈지구적 위기와 적녹보라 패러다임〉 강의, 〈진보평론〉) 박이은실(〈지구적 위기와 적녹보라 패러다임〉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유상균(〈지구적 위기와 적녹보라 패러다임〉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강남훈(〈지구적 위기와 적녹보라 패러다임〉 강의, 한신대 교수)</p>
<p>2016년 7학기 강사</p>	<p>최원(〈현대철학의 쟁점〉 강의, 〈문화/과학〉 편집위원) 이요우(〈한국현대문학의 이해〉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임준성(〈문명의 전환과 아시아〉 강의, 목포대 줄여줄문학과 교수) 김정주(〈정치경제학개론〉 강의, 〈진보평론〉 편집인) 유상균(〈현대과학과 동양사상〉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담임교수) 양준석(〈사회적관계를 위한 연금술_비폭력대화〉 강의, 마음에터협동조합) 강정석(〈자기 삶의 설계〉 강의, 지순협 대안대학 사무국장) 메스폴리 말레그리아(〈무용 워크숍〉 강의) 오늘공작소(〈3D프린터제작 워크숍〉 강의)</p>

6. 교육과정의 구성 : 8학기 쿼터제

[지순협 대안대학]은 총 2년 과정, 8학기 쿼터제로 구성됩니다.

8학기 쿼터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첫째, 수강생들이 더욱 다양한 과목들을 들을 수 있으며, 둘째로는 방학이라는 긴 휴식기 없이 2년 간 꾸준히 공부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학기 편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2개월	2주	2주	2개월	2주	2주	2개월	2주	2주	2개월	2주	2주
이론/워크숍 과정 (개론1)	프로 토걸 발표	방학	이론/워크숍 과정 (개론2)	기획 초안 발표 (1)	방학	이론/워크숍 과정 (심화1)	기획 초안 발표 (2)	방학	이론/워크숍 과정 (심화2)	중간 발표	방학
5학기			6학기			7학기			8학기		
2개월	2주	2주	2개월	2주	2주	2개월	2주	2주	2개월	2주	2주
이론/워크숍 과정 (고전 강독)	심화 기획 발표	방학	이론/워크숍 과정 (대안사회)	자유 전공 멘토 결정	방학	자유전공 (1)	졸업 중간 발표	방학	자유전공 (2)	졸업 최종 발표	방학

[그림-4] 지순협 대안대학 학기 편성 : 8학기 쿼터제

[지순협 대안대학]의 교육 참여자는 2개월 동안 <이론 과정>과 <워크숍 과정>을 수강하며, 마지막 1개월의 2주 동안은 졸업을 위한 다양한 결과물들을 예비적으로 구성, 사전 피드백을 받는 발표 자리를 갖습니다. 나머지 2주는 방학 기간입니다.

(1) 전공 강좌와 자유전공

[지순협 대안대학]의 교육과정 중 1학기~6학기는 전공 강좌 학기, 7학기~8학기는 자유전공 학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기	단계	개요
전공 강좌	1학기	개론(1) 기초수준 개론 강좌(1)
	2학기	개론(2) 기초수준 개론 강좌(2)
	3학기	심화(1) 심화된 난이도의 강좌(2)
	4학기	심화(2) 동/서양의 다양한 논의들을 아울러 생각해보는 심화 강좌(2)
	5학기	고전강독 동/서양의 다양한 고전들을 강독
	6학기	대안사회 대안사회의 논의들을 다루는 과정
자유 전공	7학기	자유전공(1) 자신의 전공을 스스로 창조, 졸업 및 졸업 후 진로를 준비
	8학기	자유전공(2) 졸업발표 및 이후 삶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기획

[표-3] 지순협 대안대학 전공과 자유전공

1) 6개의 전공 강좌 학기

[지순협 대안대학]의 6학기, 즉, 1년 6개월 동안의 과정은 전공 강좌를 듣는 시간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앞서 설명했던 <이론 과정>과 <워크숍 과정>을 총 6학기 동안 듣게 되는 것이지요. 학기 별로 과목이 진행될 때마다 난이도 역시 높아집니다.

1학기과 2학기에는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개론 성격의 강좌가 배치되고, 3학기~4학기는 개론보다 더욱 깊이 있는 심화 과정이 배치됩니다. 5학기에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고전들을 강독하는 수업이 배치되며, 6학기는 대안사회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실제 대안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데 중점을 맞춥니다.

2) 2개의 자유전공 학기

마지막 7학기, 8학기는 자유전공 학기로 설계되었습니다. [지순협 대안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자유전공 학기 6개월 동안 졸업 준비 및 졸업 후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 기간은 교육과정 범주 별로 배치될 3~4명의 담임

교수가 학생들의 졸업 준비 및 이후 진로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코치하게 되며, 담임교수는 해당 학생이 원하는 진로에 맞춘 다양한 개별 세미나 기획, 원하는 현장 경험 쌓기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3) 강좌의 수

매 학기 당 최대 10개 강좌가 개설되며, [지순협 대안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1인당 최대 4~5개의 강좌와 워크숍을 신청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물론 소화할 수 있다면, 추가로 더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강좌·워크숍 포함 총 5개 분야 별로 배치된 과목들을 선택하여 듣게 되며, 따라서 개설 과목은 수강신청의 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학예발표회

지순협 대안대학은 따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평가 기준은 출석과 학예발표회입니다. 학생들은 매 학기 강의가 종료되면 2주 후 ‘학예발표회’에 참석하여 반드시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해야 합니다. 발표의 형식은 논문, PPT, 작품 설명, 보고서 등 다양합니다. 다만 2년 중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5) 졸업

지순협 대안대학에서 6학기의 전공 강좌와 2학기의 자유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은 심사를 거쳐 졸업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즉 자유전공 학기 동안 자신이 견고자하는 진로에 필요한 다양한 결과물들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 정식 졸업증을 받게 됩니다.

결과물의 형식은 다양합니다. 학술적 논문이 될 수 있고, 문화기획 보고서, 현장탐방 보고서, 시나리오·소설·시집·희곡 등의 창작물의 형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형식은 졸업심사를 진행하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질적 완성도에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정식 학사 학위가 수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순협 대안대학]은 졸업 시의 결과물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결과물들은 그 형식에 따라 졸업전시 및 논문발표, 좌담회 등으로 각각 발표의 자리를 갖습니다. 논문집은 출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졸업 후 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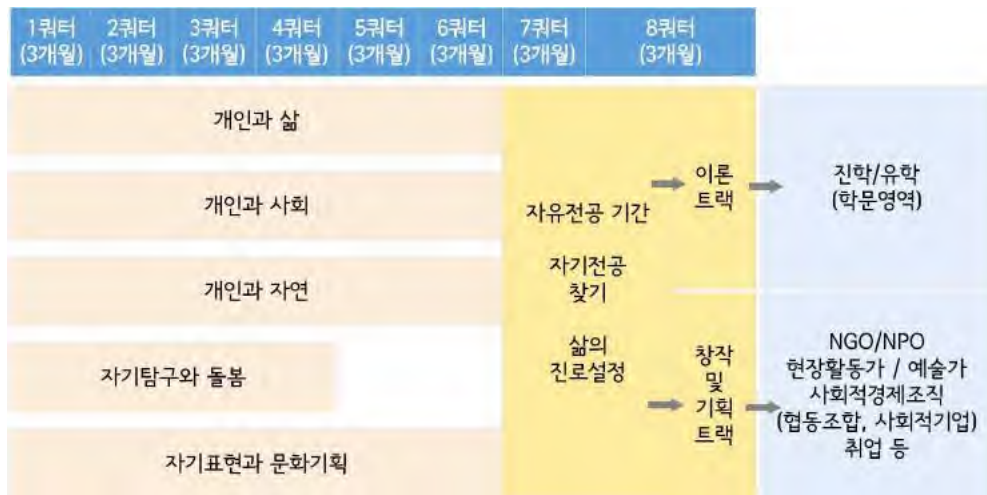
약 2년의 시간 동안 폭넓게 배웠던 이론과 실천의 통섭적인 지식들, 그리고 6개월간의 자유전공 때 스스로 자신의 전공을 설계하며 쌓은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지순협 대안대학] 졸업 후 진로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학문영역으로 진학할 수도 있으며, 운동현장을 누비는 시민활동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탐구와 자기표현의 과정을 거쳐 예술가의 길을 걸을 수도 있으며, 협동조합·사회적기업·NGO/NPO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모여 창업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입학 초기의 교육과정은 주로 이론적 영역과 자기탐구 및 표현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면, 중기와 후기로 갈수록 기획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무적 지식의 함양에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졸업 후에 바로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3) 담임교수제

물론 스스로 진로를 정하고 그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지순협 대안대학]은 ‘담임교수제’를 운영하여 입학한 학생들이 학습과정 및 진로설정을 할 때 필요한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 수 약 10명당 1명으로 배정된 담임교수들은 자신이 맡은 학생들의 학업과정의 성과나 각종 관심 분야를 유심히 살피고, 이에 맞춰 학생들의 학습과정 설계에 도움을 주며, 기타 각종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는 친근한 ‘형/누나/언니/오빠’ 같은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에서 담임교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향후 진로에 대한 전망과 실제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담임교수가 학생의 진로까지 책임질 수는 없으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의무 또한 없습니다. 진로에 대한 책임은 분담되어야 하며,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종 조언과 격려를 주고 받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 [지순협 대안대학]의 학생들이 스스로 용기 있게 앞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필요한 ‘비밀 언덕’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5] 지순협 대안대학 졸업 후 진로

7. 세부 교육과정

(1) 이론 과정 과목 개요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개인과 삶	개인·사회·철학	인물로 보는 철학사	예술학/미학 입문	현대철학의 쟁점	서양철학 고전강독 동양철학 고전강독	현대예술과 대안사회
	문학과 삶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미디어, 테크놀로지, 정치	한국현대문학의 이해	문학 고전강독 예술/미학 고전강독	동양미학
개인과 사회	역사란 무엇인가	현대정치의 쟁점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	정치경제학 개론	정치경제학 고전강독	동서철학의 만남
	성의 이해	지구적 위기의 쟁점들	페미니즘 이론	문명의 전환과 아시아	페미니즘 고전강독	경제와 사회
개인과 자연	물질과 우주	엔트로피와 생명	인지과학의 이해	현대과학과 동양사상	생물학/진화론 고전강독	마음의 과학과 철학
	진화론 입문	과학기술과 대중문화	진화심리학	환경위기와 인류의 미래	과학/기술사 고전강독	생태학과 녹색운동

● 철학(5과목) ● 문학(3과목) ● 정치경제(4과목) ● 물리(2과목) ● 진화론(3과목) ● 동성과정(5과목)
● 예술/미학(4과목) ● 역사(3과목) ● 페미니즘(3과목) ● 생태(2과목) ● 인지과학(2과목)

[표-5] 이론 과정 과목 개요

가. 1학기

<개인과 삶>

□개인·사회·철학

자유로운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사회일 터이지만, 개인과 사회의 관계, 공동체의 모델 및 존재 방식은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했다. 개인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 사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구성된 사회는 어떻게 개인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일까. 본 강의에서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철학적 탐구의 궤적들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문학과 삶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는 강의다. 문학의 기원과 역사적 변형과정을 검토하면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문학적 양식화 과정에 깃든 학문적 의미를 탐구한다. 구비문학과 문자문학, 고전문학과 근대문학, 현대문학과 탈현대문학의 미의식과 장르 사이의 관계를 탐색해볼 것이다.

<개인과 사회>

□역사란 무엇인가

인간의 사회적 삶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오늘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왔는지를 사료를 통해 규명하는 것이 역사학이지만, 역사 연구에는 실증 사료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둘러싼 긴장이 항상 따라다닌다. 과거의 사료란 계급적, 인종적, 성적 관점에서 선별되고 또 재해석되기 때문이다. 본 강의는 역사학의 이러한 긴장관계를 들춰내는 주요한 역사관 내지 역사철학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실제 인간의 역사 즉 동서 문명사의 역동적 전개과정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성의 이해

기존 사회에서 오랫동안 듣고 보고 배워 온 여성과 남성에 관한 고정 관념들을 페미니즘의 안경을 통해 다시 보는 훈련을 하는 강의이다.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가부장제 등 페미니즘이 발굴하고 제시해 온 여러 주요 정치적 개념들과 방법론 및 인식론 등을 다루게 될 것이며 새롭게 가지게 된 안경을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개인과 자연>

□물질과 우주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멋진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본 강의에서는 인류가 찾아낸 물질과 우주의 비밀들을 공부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 자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본다.

□진화론 입문

지구상에서 눈부시게 번창한 수많은 생명들이 아득한 태초의 단세포 생물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과목이다. 다윈의 변이와 자연선택 이론에서부터 유전학, 발생학 등의 현대과학 발전으로 확장된 최근의 진화 이론에 이르기까지 살펴보고, 진화론이 우리 인류의 정신, 사회,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나. 2학기

<개인과 삶>

□인물로 보는 철학사

역사란 시대와 인물의 끊임없는 길항작용으로 전개된다. 천재적인 철학자가 시대를 선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대적 특성과 상황에 따라 철학사조가 만들어지고 재조명되기도 한다. 본 강의는 철학자들과 그 시대를 함께 조망함으로써 인물과 시대의 역사적 연관성 및 개연성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본 강의는 문학과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문학적 양식의 변화, 예술과 미적 형식의 역사적 전개, 작가/예술가와 작품

과 수용자의 관계 변동,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구분 등 문학과 예술과 사회 간에
빛어지는 다양한 문제와 쟁점들을 다루게 된다.

<개인과 사회>

□현대정치의 쟁점

정치는 지배와 피지배를 둘러싼 갈등 해결의 과정이자 이 과정이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가는 역사적 과정의 일부다. 오늘날 이 과정은 지구적 삶을 포섭한 자본주의
의 위기로 인해 요동치며, 기존의 정치적 실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본 강의는
이처럼 복잡한 현대사회 정치적 쟁점들의 유형들을 조명하고, 새로운 정치적 대안
을 모색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지구적 위기의 쟁점들

하나의 세계(one world)라는 관점에서 지구적 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탐
구하는 강좌다. 식량과 에너지, 전쟁과 분쟁, 인구변동, 정체성, 헤게모니의 전환
등 지구공동체의 차원에서 이미 출현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위기와 쟁점들을 탐
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탐색해본다.

<개인과 자연>

□엔트로피와 생명

내가 숨 쉬며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명은 비생명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
까? 본 강의에서는 보통 원자들로 이루어진 세포가 어떻게 생명이라는 놀라운 현
상을 갖게 되는지의 신비를 물리학의 핵심 개념인 엔트로피(무질서도)를 토대로 풀
어보려고 한다. 더불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궁극적 질문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다.

□과학기술과 대중문화

오늘날 대중문화는 과학기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과학기술의 변화 속도만큼 통신 수단이나 영상, 음향을 포함한 예술 영역도 갈수록 과학기술 전문가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과학기술이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면서, 문화와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관계를 생각해본다.

다. 3학기

<개인과 삶>

□예술학/미학 입문

본 강의의 주된 관심은 미학의 기초 개념과 예술이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나아가서 미학 및 예술이론의 변화를 초래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예술작품이 인간의 현실적 삶과 어떤 관련을 가지게 되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수강생은 이런 학습을 통해 미학과 예술이론의 문제와 쟁점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테크놀로지, 정치

본 강의는 미디어와 테크놀로지와 현실의 상호작용, 미디어와 테크놀로지와 집단(대중)지성 형식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과 멀티미디어의 성장이 단순히 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와 체제, 우리의 일상적 삶과 의식에 이르는 다층적이고 폭넓은 변화 문제와 연결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개인과 사회>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

본 강의는 한국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둔다. 조선후기

의 역사 전개가 어떤 경로를 거쳐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는지, 식민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등을 통하여 한국 근대 형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방 후 극심한 혼란과 분열이 분단으로 이어지고, 이윽고 6.25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분단 및 냉전의식이 고착화, 내면화되는 과정과 독재 정치와의 상관성을 점검한다. 그리고 민중의 시각에서 조선후기, 식민지시기, 해방 후 민주화 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는 무엇이고 그 해결 방향은 어디인지도 모색해볼 것이다. 이탈리아 역사학자 크로체가 말한 대로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본 강의의 또 하나의 목적이다.

□페미니즘 이론

페미니즘 사상의 흐름들을 각 시기와 조류를 대표하는 이론가들의 글을 통해 살펴보는 강의이다. 이와 동시에 일제강점기 하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운동기부터 현재까지 한국사회의 페미니스트 운동가들과 이론가들 그리고 연구자들의 주요 작업을 살펴볼 것이다.

<개인과 자연>

□인지과학의 이해

그 동안 마음과 정신의 문제는 철학과 심리학과 언어학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20세기 후반에 가속화된 컴퓨터과학과 뇌신경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 마음의 문제는 철학, 심리학, 언어학, 생태학, 인공지능학, 뇌신경과학 등 많은 분야가 협력해 해명해야 할 다학문적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본 강의는 이런 노력이 1970년대 이래 인지과학으로 통합되어 온 역사적 경로를 살피고, 현재의 연구 동향을 개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진화심리학

진화론의 자연선택 이론은 동식물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서도 근간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진화론이 심리학과 결합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대에 이르러서였다. 본 강의는 진화심리학이 발생한 역사적 경로를 살피고, 생존과 짝짓기, 양육과 친족, 집단생활의 여러 양상을 설명하면서,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성격심리학 등을 가로지르는 통합심리학으로서의 진화심리학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라. 4학기

<개인과 삶>

□현대철학의 쟁점

20세기 철학은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축소됨과 동시에 다양하게 전문화되었다. 현상학, 실존주의, 논리실증주의, 언어철학, 과학철학, 구조주의, 정신분석학적 철학 등이 그것이다. 한편, 맑스주의 철학과 과학적 형이상학(베르그송, 화이트헤드, 들뢰즈 등), 프라그마티즘 등은 이와 달리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탐구하고자 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체주의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 과목은 분화-통합-해체의 과정을 관통하는 철학적 쟁점의 줄기를 살펴 21세기 철학의 새로운 과제를 조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한국현대문학의 이해

본 강의는 한국현대사의 주요 국면과 단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간 한국현대문학의 주요 쟁점 및 양상을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이해해보려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진실과 소통되는 ‘문학의 경이로움’을 넓고 깊게 성찰하기로 한다. 그러면서 문학이 역사와 어떻게 긴밀히 삼투하고 있으며, 현실의 질곡과 억압을 문학 특유의 문학적 상상력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 ‘문학의 활기’를 체험하기로 한다.

<개인과 사회>

□정치경제학 개론

본 강의는 자본주의적 현실 경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 틀로서 정치경제학의 필요성과 현실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강좌는 현실 경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 개념들을 소개하고 설명하게 될 것이다. 수강생은 이런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구조와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더 심화된 정치경제학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배우게 된다.

□문명의 전환과 아시아

최근 미국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중국의 경제력이 크게 부상하면서 세계정세가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지만, 경제력의 중국 집중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과 군사력은 여전히 미국에 집중되고 있다. 본 강의는 이런 상황의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이 2강 구도가 어떤 형태의 대결과 경쟁과 협력 방식으로 전개될는지 전망하면서 대안 세계화로의 이행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개인과 자연>

□현대과학과 동양사상

현대과학은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인간의 감각 영역을 넘어 자연의 심층부를 탐험하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유·불·선을 비롯한 동양사상의 사유체계와 주목할 만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본 강의에서는 현대과학이 발견한 사실들과 그 이해가 동양사상의 사유체계와 갖는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동서양 과학과 사유체계의 협력 가능성도 모색해본다.

□환경위기와 인류의 미래

현재 우리 인류는 극단적인 소비를 부추기는 자본주의의 그늘 아래에서 화석연료 고갈에 의한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본 교과에서는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삼아 진단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은 무엇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문명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본다.

마. 5학기(고전강독)

고전강독 과정은 지식의 공유와 자율적 사용, 공감적 소통과 협력의 취지에 어울리는 동서양의 고전들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위해 개설되었다. 제자백가와 중세신학, 근현대의 정치.사회사상 및 페미니즘, 문학 등을 폭넓게 선별하여 집중 강독해 본다. 이 과정을 통해 텍스트가 발생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으로,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지금 여기’의 당대적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개인과 삶>

☐서양철학 고전강독 & 동양철학 고전강독

동·서양 철학 고전을 탐독하며 인류가 쌓아온 철학적 고민들을 일별해보는 과정을 담는다. 이를 통해 철학사의 거대한 물줄기의 정수를 맛보고, 향후 철학적 탐구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예술/미학 강독

예술/미학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을 담고 있는 고전을 탐독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예술/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문학 강독

동·서양의 문학 고전을 읽어나가며 당대 사회문화적 맥락과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을 느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고전에서 해석할 수 있는 현대적 의미를 탐구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개인과 사회>

☐페미니즘 강독

페미니즘 이론과 운동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고전들을 함께 읽고 이를 현재의 개인, 사회, 자연 등 지구 행성이 처한 문제를 적녹보라 패러다임을 통해 해결하는데 어떻게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을 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정치경제학 강독

현대 자본주의의 주요 모순을 가장 심도 깊게 분석했던 정치경제학의 주요 고전들을 탐독하고, 고전들의 현대적 맥락을 살펴보도록 한다.

<개인과 자연>

☐생물학(진화론) 강독

21세기 진화론과 생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고전을 읽어나가며 인류의 역사에 있어 진화론과 생물학이 가진 의미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과학/기술사 강독

현대 사회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우리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해당 분야의 고전을 읽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전지구와 인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한다.

바. 6학기

☐현대예술과 대안사회

20세기 이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문화운동 사례 분석을 통해 현대예술과 대안사

회의 문제 및 쟁점들을 다뤄보려는 과목이다. 다양한 문화운동이 예술을 일상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일상을 심미화하려 해던 시도, 미적 혁명과 정치적 혁명의 결합을 위한 노력과 그 실패, 놀이와 축제를 통한 일상성의 혁명적 전환 시도, 차이와 다름을 넘어서는 감각적 ‘코뮌’ 형성 실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동양미학

그 동안 서구 중심의 미학만을 강조해온 미학사를 비판하면서, 인도·중국·이슬람·동남아·일본·한국 등 자체적으로 심도 깊은 미학을 발전시켜왔던 다양한 문화권들의 예술문화를 탐구해본다. 이를 통해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서구중심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세계시민적 감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과 사회>

□동서철학의 만남

소외의 심화, 전 지구 차원의 환경위기,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양극화, 폭력의 심화 등 인류 사회가 맞고 있는 위기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르크스를 비롯한 서양의 진보 사상, 진화생물학, 인지과학, 인류학, 양자물리학, 원효의 화쟁 사상을 중심으로 한 불교와 도교, 유교 사상을 종합하여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경제와 사회

본 수업은 경제와 사회 사이의 다양한 관계성에 대해 탐구한다. 경제와 사회는 분리될 수 없지만, 지배적 경제학에서는 사회를 의도적으로 괄호치고 다루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로부터 벗어나, 경제가 어떻게 사회에 착근되고 경제적 논리로 사회를 다루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와 사회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본 수업의 목표이다.

<개인과 자연>

□마음의 과학과 철학

인지과학은 마음의 작용을 컴퓨터 모델에 근거했던 1세대에서, 뇌의 신경망 모델에 근거한 2세대를 거쳐, 뇌와 몸과 환경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마음의 작용을 확장해서 분석하는 3세대로 발전해 왔다. 이 과목은 <인지과학의 이해>의 심화과정으로서, 3세대 인지과학이 철학적 성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심화시켜 나갈지를 전망하고 토론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생태학과 녹색운동

이 강의는 오늘날 생태학이 중요해진 배경과 이와 연결된 녹색운동의 다양한 활동들을 살핀다. 또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생태론의 관점에서 생태적인 사회를 구축할 조건들과 그 조건들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살핀다. 학문적인 관심도 중요하지만 개발주의와 ‘먹고사니즘’에 짓눌린 한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미 있는 질문을 만들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2) 워크숍 과정 과목 개요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자기 탐구와 삶의 설계	자기와 타인의 이해	겉기 워크숍	자기 몸 탐구	사회적 관계를 위한 비폭력대화법		
	미술과 자기탐구	음악과 자기탐구	연기와 자기탐구	자기 삶의 설계		
자기 표현 및 문화 기획	손기술 워크숍	자기표현 글쓰기	서사장작 워크숍	무용 워크숍	홍보마케팅 기획워크숍	주제토론
	공간디자인 워크숍I	공간디자인 워크숍II	영상기획 워크숍	3D프린터 제작워크숍	도시재생 워크숍	문화행동 워크숍

[표-5] 워크숍 과목 개요

가. 1학기

□자기와 타인의 이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 다만 갈등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도 한다. 애니어그램은 차분하게 자신을 탐구하고 개성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의미 있는 하나의 도구다. 본 워크숍은 자기성장을 통한 내면의 깊은 곳으로 자기를 발견하도록 하는 유용한 도구인 애니어그램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미술과 자기탐구

미술은 전문가의 특수한 지식과 기예로 만들어진 고급예술의 한 분야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각자의 감각과 욕망과 삶의 경험을 시각적 표현을 통해 성찰해 보는 자기 탐구의 한 형식이 될 수 있다. 글을 곁들인 그림일기나 그림 자서전 등

과 같은 손쉬운 시각적 형식들을 이용하여 세계 속에서 자기와 타자가 맺는 다양한 관계들을 공간적으로 풀어내어 자신도 몰랐던 자기 삶의 다양한 면모를 객관화해 보는 데 본 워크숍의 목적이 있다.

<자기표현 및 문화기획>

□손기술워크숍

본 워크숍에서는 손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질료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손기술을 배우면서 삶에 쓸모가 있는 실용적인 물품을 내 손으로 직접 제작해보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상품소비로 인해 잊어버린 나의 손기술을 재발견함과 동시에 생활과 삶, 소비습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몸으로 체득해보도록 한다. 결과물은 발표회를 통해 공유한다.

□공간디자인 워크숍 I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적인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해보는 워크숍이다. 현재 ‘동네’ 등 일상생활공간에서부터 마을 등의 공적 공간에 이르기까지의 범위를 다룬다. 공간을 다르게 체험해보고, 새로운 시선으로 살펴보면서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체득해나감과 동시에 이를 시각적인 요소로 묘사해보는 과정을 담는다. 결과물은 발표회를 통해 공유한다.

나. 2학기

<자기탐구와 삶의 설계>

□걷기 워크숍

직립보행이 시작한 직후, 걷기는 인류의 보편적인 활동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걷기는 중요한 사유의 방식이자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환경 아래에서 걸으며 사색하고, 그 사색을 동료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를 더 깊게 생각하고, 사회를 면밀히 관찰하고 성찰하며, 동료들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본 워크숍의 목표이다.

□음악과 자기탐구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음악은 다른 어느 예술보다 깊이 생활 속에 밀착해 가고 있다. 각자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악의 유형은 자기 삶의 패턴과 경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삶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 과목은 각자의 음악적 취미 형성의 역사를 점검-분석-발표하여, 음악과 자기 삶의 상호 관계를 성찰해 보면서, 타인의 음악적 취미에 귀 기울여 음악적 취미판단의 다양화가 각자의 감성적-인성적 확장에 기여할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기표현과 문화기획>

□자기표현 글쓰기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삶의 길을 돌아보는 자서전을 수필 형식으로 직접 써보는 과정을 담는다. 그리고 이러한 자서전을 수업의 다른 친구들과 공유해본다. 이를 통해 스스로 걸어왔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찾아보도록 한다. 수업의 결과물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공유한다.

□공간디자인 워크숍 II

I에 이어 진행되는 수업이다. 실제 특정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해보는 과정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행까지 진행하면서 공간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과 쓸모, 그리고 활용방안들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공간성, 장소성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키워나감과 동시에 다양한 문제해결의 과정을 통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기획력을 확장시킨다.

다. 3학기

<자기탐구와 삶의 설계>

□자기 몸 탐구

수업의 마지막 날 우리는 밖으로 나가 함께 걸을 것이다. 그리고 아늑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자연이 안겨주는 것들을 몸으로 표현하게 될 것이다. 앞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는 마지막 날 자연 속에서 느끼고 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몸으로 느끼는 즐거움, 몸으로 표현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시간이다. 하나의 몸으로 나의 몸을 느낀다. 그 앞에 있는 너의 몸, 나무의 몸, 구름의 몸을 만난다. 시간과 함께 흐르며 살아있음을 느낀다.

□연기와 자기탐구

본 워크숍은 연기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담는다. 기본적인 연기 훈련과 다양한 놀이를 통하여 자신의 신체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표현력 있는 몸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 전반적인 신체의 균형을 잡는다. 소중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 후, 자신의 신체와 소리를 정확히 이해하여 자연스럽게 전달력 있는 몸과 소리를 표현해 본다. 독백 장면 만들기를 통한 호흡, 발성, 화술훈련으로 무대 위, 대중 앞에서의 소리내기에 자신감을 갖는다. 즉흥극은 최종적으로 소수의 지인을 초대하는 발표 형식을 취하며 그 방식은 수업 중에 학생들과 협의해 나간다.

<자기표현 및 문화기획>

□서사창작워크숍

서사양식, 인물, 구조, 패턴 등 서사창작에 관한 기초 이론을 학습하며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등 내러티브의 기획 및 창작실습을 진행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서사를 구축해나가며 이를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글쓰기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이러한 서사를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상상력의 범위를 확장시키도록 한다.

□영상기획 워크숍

영상은 현대의 뉴 미디어적 환경에서도 여전히 매우 강력한 표현력과 전달력을 갖춘 매체다. 특히 기술의 발전과 함께 누구나 손쉽게 영상기기들을 다룰 수 있게 되는 미디어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영상리터러시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 따라 본 워크숍은 영화 및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포맷의 영상물을 기획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영상매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미디어의 ‘대안’적 활용의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라. 4학기

<자기탐구와 삶의 설계>

□사회적 관계를 위한 비폭력대화법

우리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 규범, 관행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 그러한 ‘사실’은 지배적 이야기가 되어 나의 삶을 위축되고 빈약하게 만든다. 내러티브접근은 개인이 지닌 고통이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그 개인이나 가족의 결핍과 병리에 초점을 두는 방식을 비판하고 사회적 맥락을 조명함으로써 문제화하는 지배적 이야기로부터 벗어나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임파워시키고자 한다.

□자기 삶의 설계

이 수업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먹고 살지’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간다. 매우 중요하지만 두려움 또는 망설임, 불안감 때문에 아무도 묻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는,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이 질문을 여럿이 함께 고민해본다. 스스로 관심 있는 직업 영역을 선정한 뒤 이 영역을 직접 조사하고 롤 모델을 인터뷰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한다.

<자기표현 및 문화기획>

□무용 워크숍

여럿이 함께 춤추는 워크숍이다. 춤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소통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몸을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사라져가며,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몸에 대한 중요성 역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본 워크숍에서는 격렬한 춤을 동료들과 함께 추면서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가능성을 신뢰하고, 몸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원초적인 소통의 가능성을 깨닫는 과정을 목표로 한다.

□3D프린터 제작워크숍

과학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을 통해 우리들의 삶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3D프린터는 기존의 제조업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감각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3D프린터를 직접 제작해보는 과정을 통해 기술의 변화와 그 활용성의 감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감각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리들의 삶의 관계성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마. 5학기

<자기표현과 문화기획>

□홍보마케팅기획 워크숍

기획자로서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실무 워크숍이다. 비영리조직의 홍보마케팅에 대한 개론에서부터 실제 실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진행한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적인 내용을 익히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기획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익힌다.

□도시재생워크숍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경직된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와 마을을 재발견하기, 무심코 지나쳤던 도시 내 유휴 공간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련된 연구 및 탐방, 이를 바탕으로 하는 기획안 작성 등의 과정을 거치며 마을 및 지역 활동가가 갖춰야 할 기초적인 역량을 키운다.

바. 6학기

<자기표현과 문화기획>

□주제토론

6쿼터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는 워크숍이다. 강사는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한 뒤 상호 토론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담당하며, 내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분야의 현재적 이슈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감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또한 쌓을 수 있도록 한다.

□문화행동 워크숍

각종 운동의 현장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화행동의 의미와 현재의 맥락을 짚어보면서 현장탐방 및 직접행동 등의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실제 문화행동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시야를 넓히면서 사회활동가로서의 기초적인 역량을 키운다.

9. 2017년 입학 전형

(1) 개요

- 1) 지원 자격 : 연령, 학력 불문. 대안적 삶을 지향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습니다.
(단, 입학 시 반드시 지식순환협동조합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 조합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2) 등록금 : 1개월 330,000원(1학기 990,000원)
- 3) 납부 방식 : 3개월 분(1학기) 일시 납부 또는 1개월 분 납부

※ 지순협 대안대학은 최소한의 등록금으로 운영됩니다. 강사비, 임대료, 기타 운영비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과 지식순환협동조합의 월 조합비, 기타 강좌 프로그램의 수익금으로 충당됩니다.

(2) 전형 일정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학원서 접수	2016.11.28.(월)~12.16.(금)	www.freeuniv.net 에서 원서 다운로드 후 메일로 제출 (kcunion2013@gmail.com)
1차 입학설명회	2016.12.2.(금)	서울혁신파크
2차 입학설명회	2016.12.12.(일)	서울혁신파크
심층 면접	2016.12.17.(토)~12.18.(일)	면접자 개별 연락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 등 심층 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2016.12.19.(일)	합격자 개별 연락

등록금 납부	2016.12.19.(월)~12.21.(수)	우리은행 1005-102-453537 예금주 : 지식순환협동조합
오리엔테이션	2016.12.26.(월)~12.27.(화)	상견례 및 [지순협 대안대학] 취지와 목적 공유 학칙 제정, 수강신청 등
개강	2017.01.04.(수)	

(3) 문의

메일	kcunion2013@gmail.com / kcunion2013@naver.com
홈페이지	www.freeuniv.net
전화번호	02-6401-0115 / 010-4721-5757 (사무국장 강정석)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kunion2013
트위터	@kcunion2013
카카오톡 아이디	bareundol

※ 상시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나 메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남겨 주세요!!

[지식순환협동조합 창립선언문]

교육을 통해 대안적 삶과 세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 여기에 모여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자유로운 개인들이 연대하여 서로 간에 가르치고 배우며, 협력과 공생의 가치를 음미하고 실천하며 창조하는 일이 오늘 시작된다.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이하 지순협 대안대학)은 오늘의 교육현실과 사회현실, 문명사적 상황을 전면적 위기로 인식한다.

오늘의 교육현실은 무한경쟁 이데올로기를 생애주기의 전 국면에 걸쳐 체계적으로 주입, 내면화시키지만 그것의 본질은 '바닥으로의 경쟁'이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주체는 타자에 대한 불안과 증오만 부채질 해, 교육 그 자체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오늘의 사회현실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사회분해의 과정이자 결과로서 인간 그 자신에 대한 모욕과 해체가 가속화되고, 사회적인 것 모두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인간과 사회의 동시적인 쇠퇴와 파괴의 구조적 경향을 거슬러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의 교육이 당면한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의 문명현실은 9.11에서 비롯된 세계패권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3.11에서 확인된 문명사적 난제에 직면하여, 인류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과 대안적 세계전망이 구상되고, 실천되고, 체화되어야 함을 강하게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현실은 인간과 사회, 문명에 대한 책임 모두에 있어 무능하고 또 무책임하다.

오늘의 '경쟁사회'와 '경쟁교육'의 결과가 "인간이 인간에게 이리인 상태"의 극단화일 뿐만 아니라, 문명의 자멸적 파괴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근대를 관통하면서 인간은 자연을 인간화했지만, 21세기의 인류가 발견한 명백한 역설은 오늘의 인간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자연 상태'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은, 지옥의 입구에 도달해 있다는 점이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 문명의 자기보존과 발전적 전승을 위해 '불'을 지키는 일과도 같았다. 개인과 개인이, 사회와 사회가, 문명과 문명이 가르치고, 배우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을 관용적으로 촉진하는 일이 활성화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교육이 서로를 파괴하고 조소하는 극한적 경쟁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아니라, 소통과 관용과 협력과 상호창조의 과정이라면, 우리가 꿈꾸는 다른 세계는 언제나 가능하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 [지순협 대안대학]을 창립하고자 하는 것은 이전까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틀 지웠던 상호적대와 경쟁, 수직적 위계화와 분리, 전문화, 담론의 추상화와 생활세계의 식민화, 무엇보다 인간 그 자신의 사물화와 유령화 등을 둘러싼 현재적 위기를 '모두를 위한 교육'이자 '모두에 의한 교육'이라는 협력교육을 통해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에서이다.

대안대학을 통해 우리는 지식의 생산, 유통, 수용의 전 과정이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는 낡은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극복할 수 있는, 분리되고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연결하여 순환시키는 새로운 지식순환 교육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은 물론,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과 형식 모두를 변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는 개인과 사회 모두의 협력적 공진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협력교육은 모두를 균질화된 세계의 틀 안에 구겨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의 고유성이 더 넓어진 학습의 연결망 안에서 확장되고 심화되는 것과 동시에, 거꾸로 그렇게 구성된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개인의 자유는 확장되고 협력사회의 전망은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될 것이다.

교육을 통한 협력사회의 촉진은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은 세계에 대한 염원이 아니라, 우리가 망각해 왔거나 혹은 예견하게 될 전혀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낡은 경험과

문서와 인간조건을 복기하는 필요조건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것의 결과로서 우리 앞에 희미한 실루엣으로 아른거리는 것은 다른 세계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그 다른 세계로 나아갈 한 장씩의 티켓을 예매하고, 이제 긴 여행으로 가는 입구인 플랫폼 앞에 서 있다. 우리가 든 지도는 아직 선명하지 않고 모두가 나침반을 공유한 것도 아니며, 여로는 고될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 끊어진 길을 이어가며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제 이 길로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2013. 10. 25.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설립추진위원회 일동



(03371)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번지)

서울혁신파크 1동 4층 402호

02-6401-0115

www.freeuniv.net

kcunion2013@gmail.com

www.facebook.com/kunion2013

@kcunion2013

카카오톡 ID bareundol